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no.47

2014년 7 / 8월

발행인 | 차상훈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 발행일: 8월 20일 (격월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014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수상!

대한민국 의료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이 '2014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을 수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차상훈 병원장은 7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4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시상식'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최성락 대변인으로 부터 수상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은 지난 30년간 경기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온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진료는 물론,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차상훈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1985년 의료의 불모지에 자리 잡고 안산, 시화지역에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진료 뿐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나아가 인류발전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료한류' 시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은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광범위한 소비자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맞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 장을 열어가는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제약사, 의료관광업체, 의료복지법인, 의료노문을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되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수상은, 의료 불모지에서 펼친 지난 30년의 세월의 인술을 바탕으로 미래 보건의료의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상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근 830병상 규모의 증축공사를 완공했다. 더욱 쾌적한 병동 생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이번 본관증축을 시작으로 환자가 더욱 편안하게 병원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센터화 및 외래 재배치를 통해 최상의 진료 시스템을 갖추 계획이다. 질환별 전문센터화 및 외래 재배치는 환자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동선을 최소화하고 한 공간에서 다학제협진이 가능하도록 한 최상의 설계로,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신개념의 진료시스템을 선보인다는 목표 하에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됐다. 의료서비스의 최첨단화를 위해 확장되는 소화기센터, 심장혈관센터 및 수면장애센터와 이번에 신설될 암센터, 장기이식센터, 신장센터 등의 질환별 전문센터화를 통해 제공되는 다학제협진으로 전문성을 더욱 높은 최상의 진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5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지역중심의료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왔다. 지역 최초 암 치료기 래피드 아크와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도 암환자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여성암 등 다양한 암환자를 치료, 암 치료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지역 암 치료 중심병원을 표방하고 내·외과 협진을 통한 진단과 치료, 전문성 높은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암 치료 등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실현하고 있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로 선정, 신생아 중환자 집중 치료의 중심센터로 인정받았다. 이는 응급 의료센터, 내·외과 중환자실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므로 명실상부한 안산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중심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지역 내 최고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들과의 경쟁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과감히 도입하고, 최고의 의료진 영입 및 기존 의료진의 해외 우수 의료기관 연수 등 전문인력에 투자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에 끊임없는 의료봉사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Contents

2p
단원재난의학센터 발족



3p
세계속의 안산병원



3p
건강칼럼



4p
부서 특집



5p
연구의 핵심, 안산병원



5p
PHOTO NEWS



단원재난의학센터 발족

高大 안산병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안전망 구축

대학병원 최초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마련



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까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각종 정신장애가 사건 후 십 수 년 후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고대 안산병원 단원재난의학센터는 재난 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예방적 재난대응 안전망 구축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 본연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재난의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도 몰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고대 안산병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배에 탑승한 단원고 학생과 유가족에게 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외과계열까지 다학제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또한, 병원 내에 심신건강증진센터(스트레스 힐링센터)를 두어 안산시민들이 방문하면 언제든지 상담 및 진료를 받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에, 더 나아가 고대 안산병원 유전체연구소(소장 신철)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 문제'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안산병원 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로 경기 및 안산지역의 자료를 토대로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이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안전망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안산병원은 지난 7월 23일 본관 13층 대회의실에서 병원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단원재난의학센터' 발족식을 갖고, 국가재난 발생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것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최근 일어난 초대형 대규모 국가재난이었던 세월호 참사와 최전방 총기난사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날이 갈수록 예측불가능한 대규모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현재의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발 빠른 대응과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대형 사고는 당사

또한 8월중으로 고대 안산병원은 단원재난의학센터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 및 유력인사를 패널 또는 연자로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단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 및 재난 대응 체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이번 단원재난의학센터의 발족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인재에 대비해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세월호 침몰 100일 맞아 대학병원 최초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마련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겪을지 모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언론에 비친 안산병원

언론에 비친 안산병원

2014년 5월 ~ 6월

- 효도시술 대신 ... 차분해진 가정의 달 - 정신건강의학과 고영훈 교수 - 서울경제 - 5월 1일
- 외상 후 스트레스 -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5월 7일
- 불면 · 식욕감퇴 ... 790명 심리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고영훈 교수 - 한국일보 - 5월 7일
- 가족 중 위암? 대장암 검사도 꼭 ... -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 - 중앙일보 - 5월 12일
- 홍역과 결핵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KBS 라디오주치의 - 5월 14일
- 대상포진, 최선의 예방법은 백신 접종 -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중앙일보 - 5월 19일
- '소리없는 살인자' 혈관질환 잡아야 ... - 응급의학과 문성우 교수 - 경향신문 - 5월 21일
- 심장 응급시스템 갖춘 의료기관 선택해야 - 순환기내과 송우혁 교수 - 경향신문 - 5월 21일
- 환자 사례 - 피부과 유화정 교수 -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 5월 22일
- 美 신경외과학 지침서 ... 발간 - 신경외과 김세훈 교수 - 파이낸셜뉴스 - 5월 23일
-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센터 - 소화기내과 구자설 교수, 현종진 교수 - 국민일보 - 5월 26일
- “지하철 방화, 불특정 다수 향한 ...” -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 이데일리 - 5월 28일
- 손 피부병, 우울증 까지 온다 - 피부과 손상욱 교수 - YTN 뉴스 - 5월 28일
- “만성골수성백혈병, 투약 잘하면 ...” - 중앙혈액내과 성화정 교수 - 국민일보 - 6월 3일
- 맹벨 장시간 노출 ... 뇌 손상 이어질 수도 - 응급의학과 조한진 교수 - 중앙일보 - 6월 8일
- 피부과 햇갈리는 여름철 아토피 관리 ... - 피부과 손상욱 교수 - 조선일보 - 6월 24일
- 전문교육 받지 않은 ... -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 - YTN 신윤의출발새아침 - 6월 25일
- 관심 병사 분류, 제대로 이뤄졌나? -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 - YTN 뉴스 - 6월 27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 (2)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연구교수, 교환교수, 방문교수, 연구원 등으로 재직된 우수한 의료진들이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한 안산병원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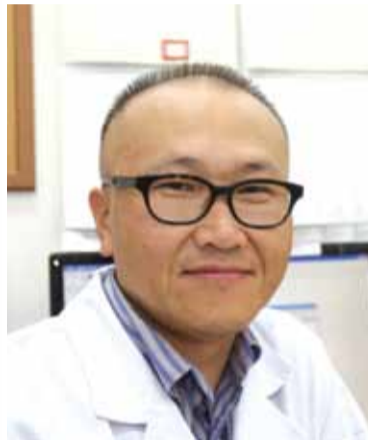


김상대 교수 <신경외과>

뇌종양, 뇌수두증, 모야모야병, 선천성척추이분증, 두개골조기유합증, 뇌내시경수술

연수기간 : 2013.08 ~ 2014.07

연수내용 : 뇌종양 및 소아 신경계 질환



박대원 교수 <감염내과>

감염성질환, 발열질환, 성인예방접종, HIV/에이즈

연수기간 : 2012.09 ~ 2014.06

연수내용 : 중증패혈증의 선천면역 강화와 다발성 장기부전의 중증도 완화

건강칼럼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 만병 일으키는 적신호! 올바른 수면 환경 조성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해야



새벽경기로 잠을 설치게 한 월드컵에 이어 잠 못 드는 열대야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열대야는 한밤 최저 기온이 25℃를 웃도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하였을 때 밤에 복사냉각의 효과가 감소해 나타납니다. 특히 도시에는 교외지역에 비해 사람, 건물, 자동차, 공장 등에서 엄청난 인공열이 발생, 열대야를 더 심화시킵니다. 이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극심한 더위로 지친 몸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지만 열대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 주간 졸림증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칩니다. 무엇보다 열대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수면부족입니다.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중추신경계에서 체온과 수면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더위 때문에 자극을 받고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져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복된 열대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낮 시간의 피로감이 심해지며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짜증, 신경과민, 피로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잠에 대한 스트레스로 더욱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 만성적인 수면장애를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수면장애는 신체적인 면역기능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즉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수면부족현상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부족이 스트레스로 작용함으로써 혈압을 높이고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즉 열대야로 인해 숙면이 지속적으로 방해받을 경우 주간 졸림증과 피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6~7시간인 사람보다 고혈압 발병률이 1.5배 높으며,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도 높입니다.

만약 열대야로 인해서 수면주기가 깨지고 열대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면다원검사란 검사장비와 수면시설을 갖추고 환자에게 수면을 취하게 하며 뇌파, 안구운동, 혈압, 코골이, 호흡정도, 수면 동안의 움직임 등을 비디오로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인 수면의 질과 장애 원인을 분석해내는 검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환자가 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지 분석이 되면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의 원인을 밝히고 각 원인별로 수면환경개선이나 약물치료 또는 양압보조기, 레이저 수술 등의 치료를 통해 수면장애를 치료하게 됩니다.

열대야는 환경적 요소로 인한 수면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알맞은 실내 온도를 유지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잠을 자는 방의 온도를 수면에 알맞은 18~23℃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고, 일정한 조명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TV를 켜놓고 수면에 취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자는 것은 수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침대에서는 수면만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수면을 취하기 2~3시간 전 가벼운 운동(산책, 줄넘기 등)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면주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수면 시간은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며, 그 패턴에 따라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면 패턴, 즉 주기는 저녁 11시 이후부터 아침 7시 전후가 이상적인 수면 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활동하거나 늦잠을 자게 되면 수면주기가 무너져 생체리듬이 깨져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글 |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 Well-being at work

직업환경의학센터



산업이 고도화 되어 갈수록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센터장 박종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업활동으로 인한 건강장애발생 요인을 관리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므로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우수한 의료진과 작업환경측정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최고의 분석능력 및 수준 높은 보건관리서비스로 전국 직업환경의학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진다

현대인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직업과 연관된 환경에서 보내며, 또한 그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환경의학은 어느 분야보다도 생활과 생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학분야라 할 수 있다.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는 작업환경에서의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부적절한 작업 자세,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는 직업성 질환을 측정 및 관리하고, 조사내용과 외래진료를 통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해인자의 유무를 밝혀낸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질환 확진 및 업무 관련성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전에 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환경의학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적인 직업환경보건 서비스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산업위생관리기사, 화학분석사등 다양한 전문인력과 첨단분석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서비스등 종합적인 직업환경의학서비스가 가능한 이유이다. 특히 화학분석실에서는 AAs, Mercury Analyzer, GC, HS/GC, HPLC, IC등의 첨단분석기기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해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상의 보건관리서비스를 가능케 함은 직업병예방사업에서도 나타난다.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직업병의 사전적 감시자로서 명실 공히 국내 최고임을 자부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의 선구자

또한 국내최초로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와 안산시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 및 고혈압당뇨교육센터는 직업환경의학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흥, 안산 지역의 대표적 보건전문기관이다. 특히 이들 센터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릴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연계함으로 근로자 건강 및 지역보건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국가안전보건 정책과제 수행의 선도적 역할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연구조사활동도 활발하다. '석면이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한 조사활동과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사후관리 사업' 등 지역보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작업강도 및 생리적 변화 분석에 대한 연구'는 직무별 정량화된 작업강도 산출 및 신체 생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DB구축을 목표로 수행한 대형국책과제이다. 또한 안산시의 역점사업인 안전, 안심, 안정된 도시로 만들기 일환으로 수행한 '안산시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는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박종태 교수, 산재보험50주년 기념 국무총리표창 수상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인 박종태 교수는 지난 7월 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1997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태 교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이들을 위한 보상정책제도 연구,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 등 산재보험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이미 근로자의 질병 예방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예방의 달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박종태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혈압, 당뇨와 같은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에 역점을 두어 건강한 직업환경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연구의 핵심, 안산병원

고대 안산병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MOU 체결

의료기기 공동개발, 국산화에 박차 상호협력 통해 의료기기산업 선도 기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6월 25일 오후 3시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업무협력협약 MOU를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차상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과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HT(Health Technology)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분야 정보교류,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R&D 역량제고를 위한 공동기획사업 추진,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협조, 기업주관 국책과제 컨소시엄 구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상훈 원장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대학 본연의 중대한 역할인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회원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에 있어서 안산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한 결과물 도출과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화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둬 기술산업화와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이뤄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500여 의료기기제조업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 1979년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의료기기 상생포럼을 주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출증진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의 개최와 참가, 고용노동부의 의료기기 산업 재직자 교육 위탁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GMP 전문교육기관, 중소기업청의 비교입상 및 성능평가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등 제조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각종 사업 및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의료기기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PHOTO NEWS

‘수호천사의 행진!’ 간호사와 함께하는 하트데이



안산병원 간호부(간호실장 이경진)는 지난 6월 24일 '간호사와 함께하는 하트데이' 라는 기획 주제로 간호봉사 행사를 개최하였다. 최근 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 등 많은 내원객 들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행사는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더불어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차 서비스, 어린이들을 위한 색칠놀이 등 다양한 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장을 찾은 90세의 한 내원객은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며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덕분에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받았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경진 간호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안산병원 간호부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것이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동정 및 단신

이기열 교수, ESTI 구연발표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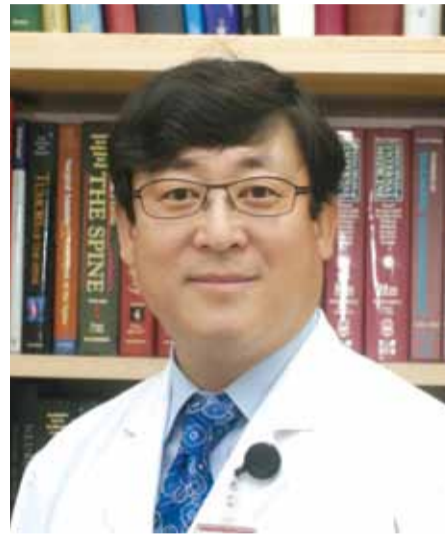
고려대 안산병원 영상의학과 이기열 교수가 유럽흉부영상의학회(ESTI :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 구연발표상을 수상했다. 이기열 교수는 지난 6월 12~14일 3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흉부영상의학회(ESTI) 연례회의에서 "Quantitative analysis of bone density, lung and airways with chest CT in subject with the COPD Candidate Gene"을 주제로 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구연발표상의 주인공이 됐다. 📌

김수현 감염관리사, 우수구연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관리실 김수현 감염관리사가 지난 5월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차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김수현 감염관리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Impact of leaders-directed strategy to reduce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s'을 주제로 발표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구연상의 주인공이 됐다. 📌

김세훈 교수, 美 신경외과학 지침서 발간



신경외과 김세훈 교수가 최근 美 신경외과학 지침서 「Lumbosacral & Pelvic Procedures (요천추부와 골반수술)」를 발간했다. 이 책은 척추의 가장아래 부분을 구성하는 요추-천추부와 골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법을 기

술한 지침서로, 척추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요천추부와 골반의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한 매우 유용한 참고서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김세훈 교수가 미국 Texas Houston의 저명한 한국계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인 Daniel H. Kim 교수 등과 함께 집필했으며, 수년 간 임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요천추와 골반의 해부학, 발생 질환과 수술 관련된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600여장이 넘는 많은 사진과 사례, 그림 등을 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5월 8일(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간호부 주관으로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어버이날에도 집을 떠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정성어린 선물로 위로하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환자분들께 다가가기 위해 각 병동 수간호사와 간호사도 함께 카네이션을 전달하여 어버이날을 기념하였다. 차상훈 병원장은 "자칫 지칠 수 있는 병동생활에서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고, 이경진 간호실장은 "치료를 위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갖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카네이션을 통해 환자분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친절리더 택시기사 건강운전 캠페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에 '택시기사님 건강운전하세요'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친절리더팀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병원에 방문한 택시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측정과 결과에 따른 무료건강상담 등의 건강지킴이활동과 기능성토시 등의 기념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사는 "평소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과신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혈당에 놀랐다"며 "건강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다짐했다. 📌

중환자실 Simulation Workshop 성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Covidien CCI Training Center에서 중환자실 Simulation Workshop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고대안산병원 중환자실운영위원회에서 주관했으며 중환자 care에 관심있는 30여명의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 의료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 강연과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된 이론 강연은 ▲Intubation(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임춘학 교수) ▲EKG Monitoring(안산병원 내과중환자실 손명희 수간호사) ▲Sedation(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민두재 교수) ▲Ventilator(안산병원 흉부외과 황진욱 교수)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사례소개와 현장감있는 강연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이론강연에서 다룬 부분에 대해 실제 즉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이뤄져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트레이닝을 통해 참석한 의료진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고대안산병원 중환자실운영위원회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며 활발한 최신지견교류와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

정년 및 명예퇴직자 감사장 전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6월 30일 오전 11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정년 및 명예 퇴직자 감사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근까지 안산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감사장 및 순금메달(20년 이상 12돈, 30년이상 15돈 : 근속기준)이 전달됐다. 차상훈 병원장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며 땀흘려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의 안산병원이 있다"며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퇴직하시는 여러분들을 본으로 삼고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차 원장은, "퇴직은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선이며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하는대로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새로운 시작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감사장 전달식에 참석한 정년 퇴직자는 민병모(통신실 부팀장), 김운진(간호부 일반업무원), 엄혜진(간호부 일반업무원)등 3명이고 명예퇴직자는 이은숙(간호부 팀장), 김미경(보험심사팀 팀장), 이기용(관리팀 팀장)등 3명이다. 📌

임상간호연구 논문 계획서 발표회 개최



안산병원 간호부(간호실장 이경진)는 지난 6월 20일 '임상간호연구 논문 계획서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 '복부마사지가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변비완화에 미치는 효과' (71병동) ▲ '미숙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과 교육에 관한 연구' (신생아중환자실) ▲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학과) ▲ '시뮬레이션 기본 소생술 반복 교육이 외래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지식, 자기효능감과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내시경실)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임상간호연구 논문계획서 발표회에서 선보인 4편의 논문은 2015년에 예정된 간호학술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치를 예정이다. 📌

호스피스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성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제9기 호스피스 신규자원봉사자 교육'을 가졌다. 이인성 호스피스회장(흉부외과 교수)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교육에는 약 50여명의 기존 및 신규 자원봉사자가 참석했으며, ▲암환자의 영양관리(김달남 영양사) ▲호스피스환자의 신체간호(서용원 수간호사) ▲호스피스에서의 사회사업팀의 역할(송지원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관리(지현 스님) ▲자원봉사자의 감염관리(김수현 감염관리사) ▲호스피스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이경금 보건관리자) ▲암환자의 통증관리(종양혈액내과 이세련 교수) ▲말기 환자 돌봄(정금옥 수간호사) 등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자원봉사자 회장의 사례발표를 통해 실제 봉사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

콜센터, 주차, 청소용역직원 대상 친절교육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6월 16일, 18일, 19일에 콜센터 직원과 주차직원, 청소직원에게 대해 각각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8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친절교육은 4기 친절리더팀이 친절의식 향상을 위해 기획하고 진행한 교육사업으로 '불만고객관리하기', '이미지메이킹'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주제로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친절리더팀은 원내 직원은 물론 용역직원까지 고객접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체교육이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시행하는 등 원내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